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

처음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소를 방문한 것이 벌써 5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지나간 세월이 실감나지 않고 옛그제 방문한 것만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바라고 바라던 시험소의 개소와 어떻게 하면 이곳의 시설을 이용하여 회사에 이익을 갖다 줄 수 있을가를 생각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첫 방문 목적은 방재시험소 1층 로비 전시실에 회사 제품을 전시하는 일이었다.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나 떨어진 여주군에서도 한적한 시골에 제품을 전시하여 무슨 선전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와 다른 한편으론 시험소의 개소 목적이 방화안전 관련제품의 시험과 우수제품의 추천이라는데 불연 종합건축자재 생산업체 중 선두를 달린다고 자부하는 회사가 이곳에 제품을 전시하지 않고 또 우수제품으로 추천도 받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서 어느 누구한테 추천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서로 꼬리를 물고 싸우고 있었다.

회사의 설립 목적은 공익과 영리추구나 그중에 영리추구를 먼저 생각하여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망설이던 중 마침내 공익성도 있고, 먼 곳에 위치되었다고는 하나 방재시험소에 찾아오는 손님은 방재관계에 관심



김 봉 양
<(주)금강 기술영업부장>

을 갖고있는 분이거나 꼭 필요하여 찾아온 손님이므로 한사람의 고객이지만 Opinion Leader 라는 생각으로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금은 서로 참여하고자 유형 무형의 줄을 잡고 협의하는 실정이나 새삼 생각하여도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 이런 서두의 말을 쓰는가 하면 건자재 생산업체와 방재시험소 간에는 서로 상부상조하여 회사와 시험소의 발전을 도모하는 공생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서이다. 방재시험소와 같은 시험기관의 출현은 수출용 제품에 내구성 자재를 사용케하고자 시도하였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대하였던 사실이다. (주)금강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0년대 이후 중동지역으로의 건설자재 수출과 조선 기자재의 납품, 원자력 발전소에 방내화재

및 불연재로 납품을 하고자 감독관과 발주자를 만나 협의하였으나 한국정부, 또는 외국의 유수기관의 인증 혹은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어떻게 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어디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였다. 국내 시험기관은 전무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었다.

불연재 시험은 몇몇 곳에서 KSF2271에 의한 시험이 가능하였지만 감독관과 발주자는 ASTM, BS, IMO, DIN 등의 규격에 의한 시험결과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해외에 있는 시험기관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였고 그 결과 영국, 독일, 덴마크, 미국, 일본의 시험기관을 알게 되었다. 그곳의 시험성적서를 취득키 위해 시편을 제작, (특히 방내화 시편의 경우 8' x 8'이상의 대형 크기의 시편임)콘테이너로 탁송하고 도착지에서 찾아 시험소로 보내 시편까지 설치하여 주고 시험을 받았다.

이때 이런 시험을 한국에서는 못하는가, 한국에서도 방내화 구조가 필요한가 하는 비아냥을 들으며 개발도상국의 설움을 느끼기까지 하였었다. 또 감독관과 발주자가 왜 이런 류의 성적서를 요구하였던가? 또 시험은 꼭 시편을 사람이 갖고 와서 해야만 하는가

를 꼼꼼히 생각했더니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비관세 장벽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한국으로 물건을 팔 때는 이런 류의 성적서없이 팔다가 한국에서 판매하겠다고 하니 안 사겠다는 말은 못하고 인증서, 성적서 등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애를 먹고 자존심 상해가면서 시험하던 것을 방재시험소가 개소되어 이곳에서 시험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곳의 성적서를 해외의 우수한 기관에서도 인정한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어렵게 세워진 방재시험소와 이를 환영한 건자재 생산업체간에는 다시는 앞서와 같은 서러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적인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건자재 생산업체와 방재시험소의 협력방안이라 함은 간단히 말해 생산업체는 시험의뢰를 많이 하여야 하고 방재시험소는 의뢰된 시험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공인시험기관으로의 지정 확대.

현재에도 내무부, 해운항만청, 국립건설시험소 등으로 부터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으나 이보다 더 많은 국내외기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겠다.

둘째, 시험방법의 다양화.

현재 주로 실시하고 있는 KS, ASTM, BS, IMO 외에 DIN, FS, ANSI, BNA 등의 규격에도 맞는 시험방법과 또 EC통합규격

건자재 생산업체와 방재시험소의 협력방안이란 한마디로 생산업체는 시험의뢰를 많이 해야하고, 방재시험소는 의뢰된 시험을 신속히 처리해 주는 한편 보다 많은 국내외 기관의 공인시험 지정과 시험방법의 다양화를 마련해야겠다.

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독점시험기관(?)으로의 방향 정리.

독점시험기관이란 용어가 잘못 선택된 용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뜻은 국가시험기관의 지정은 받았으나 국가시험기관도 시험의뢰를 접수하고 방재시험소도 시험의뢰를 접수한다고 할 때 생산업체로서는 어느 쪽에 시험의뢰할 것인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왕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았다면 정부기관은 연구, 시험만 하고 방재시험소는 수탁 및 조사 시험을 하는 등의 역할분담이 있어야 하겠다.

넷째, 홍보 및 서비스의 강화.

간혹 관련 학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방재시험소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어떤 시험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의 업계동향, 새로운 규제방향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확한 시험결과 및 판정과 사후 관리의 철저.

서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사는 영리추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시험성적서 획득을 위하여 시중 유통품과 다른 시편을 제시, 시험의뢰할 수 있으며 여러 시험항목중 자사에 유리한 부문만 시험하는 등의 편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또 발부된 시험성적서의 변조 또는 일부분만 사용하는 것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사후조치가 필요하며 성적서의 공정성을 강화시켜야 하겠다. 사후관리를 하기는 매우 힘들겠지만 방재시험소의 성적서는 내무부, 소방본부, 각 시·도의 건축가와 건물주인에게 주로 제출될 것이므로 7대도시에서 활동중인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점검요인을 활용,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하여 몰라서 이용을 못하였거나 알면서도 활용이 어려웠던 생산업체에서 스스로 방재시험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지금까지 상대하여 보았던 국내외의 어떤 시험기관보다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주고 자상한 설명을 함께 해주곤 했던 방재시험소 전 직원의 성실한 태도 때문이라도 한번 시험의뢰한 사람은 재차 시험의뢰할 것이며 더 많은 시험의뢰와 활용으로 명실상부한 한국의 UL, 방재시험소의 앞날이 펼쳐질 것을 의심치 않는다. ☺